

한글판 Children Participation Questionnaire(K-CPQ)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Participation Questionnaire

고유정*, 고수정**, 채수경**
한영대학교 작업치료과*, 제주한라대학교 작업치료과**

You-Jeong Ko(nullbomot@naver.com)*, Su-Jeong Ko(crystall@jeiu.ac.kr)**,
Soo-Gyuong Chae(chae5t@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299명을 대상으로 K-CPQ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국내 발달장애아동의 참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K-CPQ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사를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CPQ의 각 영역에서 내적일치도($\alpha=.81\sim.90$)는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사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r=.807\sim.843$)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K-CPQ의 판별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그룹의 각 영역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32\sim 5.18$)를 보였다($p<.05\sim p<.01$). K-CPQ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K-SMS와 K-SFA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817, r=.743$)를 보였다($p<.01$). 본 연구를 통해, K-CPQ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갖춘 평가도구임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K-CPQ의 다각적인 연구로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참여 | K-CPQ | 신뢰도 | 타당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CPQ in 299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and non-disabled children to prove their level of participation in Korea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K-CPQ, Cronbach α was calculated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for test-retest reliability test. As a result, the internal consistency($\alpha=.81\sim.90$) in each area of K-CPQ was relatively high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807\sim.843$) in the test-retest reliability test was significant in all areas($p<.01$).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t=2.32\sim 5.18$) in comparison with the non-disabled children group in order to verify the discriminant validity of K-CPQ. For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K-CPQ,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of K-SMS and K-SFA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r=.817, r=.743$) showed($p<.01$). Through this study, K-CPQ has been confirmed as a reliable and reasonable assessment tool and we expect that diverse research by K-CPQ will provide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keyword : | Participation | K-CPQ | Reliability | Validity |

I. 서론

참여(participation)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제시하면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참여는 아동에게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영역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또래집단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건강성을 성취한다[2]. 또한 이러한 삶의 환경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라는 것은 아동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3]. 아동이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참여는 발달의 과정이자 결과의 산물으로써[4], 성별, 발달 연령, 수행 기술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 접근 가능성, 지지도 또는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 구조이다[5]. 또한 Lollar & Simeonsson[6]은 ICF모델에 따라 아동의 참여 측정을 논의하면서 능력보다는 활동의 실제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측정은 가정, 교육 환경 및 지역공동체에서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의 참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7]. 또한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주관적 차원에서의 참여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8] 객관적 차원이란 다양성 (무엇을 하는가), 강도 (얼마나 자주하는지), 독립성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과 같은 사회적 관점의 참여로 수행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차원은 즐거움과 만족감이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개인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경험에 따른 참여를 의미한다[9].

한편 장애아동은 신체기능의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활동의 참여 수준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그의 활동과 참여 수준에도 제한과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10]. 이러한 제한된 여건에도 비장애아동들과 같은 수준에서 주어지는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활동에서의 참여는 장애아동들이 자신의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로의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11]. 다양한 장

애의 상태와 그 장애로 인한 기능의 제한을 가진 아동들에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은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 [12]이므로 참여를 평가하는 것은 목표의 설정, 재활치료 프로그램 실시 및 개입의 효율성 평가에 필수적이다 [13].

아동의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들로는 School Function Assessment(SFA)[14], Children's Assessment of Participation and Enjoyment(CAPE) [15] 및 the Assessment of Life Habits(LIFE-H)[16]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대부분의 도구는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여 한글판으로 사용 중이나, 대부분 장애아동인 경우 학령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연령과 여러 기능들을 포함한 장애아동들의 참여 구성요소의 완전한 본질을 포착하기에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9]. 또한 CAPE는 저작권 문제로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도구들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가벼운 아동부터 중등도인 아동의 참여 패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의 참여와 활동은 장애의 독립적인 삶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참여에 대한 발달장애아동의 평가도구는 보고되어진 바가 없다. 단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만이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기존의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독립된 기능에만 일차적인 초점을 두어 아동의 참여수준을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아동의 참여는 가정, 사회 등 아동의 전반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ICF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객관적·주관적 참여의 측정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아동의 이와 같은 참여 측정에 대한 욕구로 개발된 도구로 Rosengberg, Jarus & Bartk[12]이 개발한 Children Participation Questionnaire(CPQ)는 아동의 부모가 작성하는 설문지로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놀이, 여가, 사회활동참여 영역에서의 참여 정도를 측정한다. 아동이 참여하는 각 활동영역에 대해 부모는 참여의 다양성, 참여 강도, 아동의 자립 수준, 아

동의 즐거움 및 만족에 대해 보고한다. 각각의 영역은 기준 점수가 제시되어 일반적 참여, 참여제한의 가능, 참여의 제한으로 분류된다. Rosengberg, Jarus & Bartrk[12]는 학령 전 유아들과 학령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차례로 연구를 진행하여 CP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CPQ에 대한 연구가 없어, 개발자인 Rosengberg 교수에게 CPQ에 대한 번안과 국내에서의 CPQ사용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아 국내에서의 한글판 CPQ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를 하고자 한다. CPQ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함으로써 발달장애아동의 참여에 대한 평가의 기초적 자료로써 유용되어지길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8년 7~9월까지 J시와 Y시에 있는 8세부터 13세 이하의 발달장애아동 146명과 비장애아동 153명의 보호자 총 2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앞서 보호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에 응한 장애 및 비장애 아동의 부모의 응답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의 일반적 특성 (N=299, 명(%))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계
성별	남	86(28.8%)	72(24.1%)	158(52.8%)
	여	60(20.1%)	81(27.1%)	141(47.2%)
나이	8~10세	70(23.4%)	72(41.5%)	142(47.5%)
	11~13세	76(25.4%)	81(27.1%)	157(52.5%)
장애 유형	지적장애	92(63.1%)	-	92(63.1%)
	자폐스펙트럼장애	54(36.9%)	-	54(36.9%)
장애 등급	1급	39(26.7%)	-	39(26.7%)
	2급	53(36.3%)	-	53(36.3%)
	3급	54(37.0%)	-	54(37.0%)

2. 연구도구

2.1 Children Participation Questionnaire(CPQ)

CPQ는 ICF모델의 개념을 전제로 한 아동의 참여 측정에 대한 평가도구로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fe, 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IADL), 놀이(Play), 여가(Leisure), 사회활동참여(Social Participation), 교육(Education) 6개 하위항목에서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부모 보고식 설문지이다. 일상생활활동에는 옷 입기, 목욕, 이 닦기 등 6문항,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는 방 정리하기, 식사준비에 참여하기 등 6문항, 놀이 영역에는 규칙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등 5문항, 여가에는 놀이터 놀기, 자전거 놀이 등 11문항, 사회활동참여에는 친구와 놀기, 친구 집에서 자기 등 9문항, 교육에는 스포츠, 음악, 방과 후 활동 등 12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이 참여하는 각 활동에 대해 보호자는 참여의 다양성, 참여빈도, 아동의 자립 수준, 아동의 즐거움 및 부모만족의 영역에 대해 응답한다. 참여의 다양성 영역은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의 수이며, 참여의 빈도 영역은 활동에 참여하는 해당하는 아동의 평균 참여 빈도는 0~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의 자립도 영역은 아동의 자립수준정도를 의미하며, 아동의 즐거움 영역은 아동의 즐거움의 평균 수준, 부모만족 영역은 아동의 활동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로, 각 영역마다 1~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이다.

CPQ의 내적일치도 Cronbach α 는 .79~.90으로 비교적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의 급간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는 .84~.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17].

2.2 사회성숙도검사 (Korean Social Maturity Scale; K-SMS)

사회성숙도검사는 바이랜드 적응행동검사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표준화한 평가도구로 아동의 적응행동과 관련하여 자조능력, 자기관리, 작업능력, 언어능력, 이동능력, 사회화영역이 있고 장애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평가도구 중 하나이다. 또한 CPQ의 하위 항목들과 가장 유사한 구조체계로 평가하는 도구이며[12], 이 도구의 Cronbach's는 .84로 보고되었다[18].

2.3 한글판 School Function Assessment(K-SFA)

SFA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환경에서 아동의 기능적인 기술 전반과 관련된 수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국내에서 표준화하였다[19]. 수행환경 참여영역, 과제지원영역, 활동수행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SFA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 계수 .92~.9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검사-재검사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는 .80~.99이다[20].

3. 연구과정

CPQ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자 Rosengberg 교수에게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우선 번안을 위해 호주에서 대학과정을 나오신 재활의학과 선생님 1인과 영어통번역학과 박사과정 1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역 번안을 위해 작업치료학과 교수 1인과 박사과정인 대학원생 2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 후 예비조사를 위해 번안을 거친 항목에 대하여 30명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한글판 CPQ 항목내용을 결정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판별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299명을 대상으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준거타당도는 무작위로 선별한 장애아동 30명을 대상으로 K-SMS와 K-SFA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K-SMS와 K-SFA는 보호자, 학교기반 작업치료사, 교사, 특수교사가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K-SMS, K-SFA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독립표

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 Cronbach α 값을 구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증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한글판 Children Participation questionnaire의 신뢰도 검증

1.1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K-CPQ의 참여의 빈도 영역에서는 내적일치도가 Cronbach α = .81, 자립도 영역은 Cronbach α = .88, 아동의 즐거움 Cronbach α = .87, 부모만족 Cronbach α =.90으로 나타났다[표 2].

1.2 검사-재검사 신뢰도

K-CP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사의 Pearson 상관계수는 참여의 다양성 영역은 .842, 참여빈도 영역은 .818, 자립도 영역은 .822, 즐거움 영역은 .807, 부모만족 영역은 .843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p<.01$)를 보였다[표 2].

2. 한글판 Children Participation Questionnaire (K-CPQ)의 타당도 검증

2.1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K-CPQ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각 영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그룹의 각 영역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2 준거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K-CPQ와 K-SMS, K-SFA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K-CPQ의 각 영역의 평균과 K-SMS의 사회지수(SQ)와의 Pearson 상관계수는 .81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K-CPQ의 평균과 K-SFA의 각 영역의 비교점수와의 Pearson 상관계수는 .7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p<.01$)을 보였다[표 4].

표 2. K-CPQ의 내적일치도와 상관계수 (N=146)

	다양성		참여빈도		자립도		아동의 즐거움		부모 만족	
	a	r	a	r	a	r	a	r	a	r
전 체	-.842**	.81	.818**	.88	.822**	.87	.807**	.90	.843**	
하 위 항목	일상 생활 활동	-.745**	.72	.811**	.68	.801**	.67	.804**	.69	.807**
	수단 적 일상 생활	-.787**	.67	.804**	.69	.807**	.64	.797**	.68	.801**
	놀이	-.814**	.78	.825**	.77	.823**	.71	.809**	.80	.842**
	여가	-.844**	.71	.809**	.73	.814**	.72	.811**	.81	.845**
	사회 활동	-.891**	.79	.834**	.81	.845**	.70	.808**	.80	.842**
	교육	-.797**	.65	.801**	.80	.842**	.76	.821**	.84	.867**

a: Cronbach α,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표 3. K-CPQ의 판별타당도 (N=299)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t
다양성	32.67±2.46	39.28±2.78	2.32*
참여빈도	2.24±0.52	3.96±2.78	3.96**
자립도	2.01±0.66	5.09±2.78	4.46**
아동의 즐거움	4.32±0.57	5.37±2.78	3.22*
부모만족	3.46±0.36	5.45±2.78	5.18**

*p<.05, **p<.01

표 4. K-CPQ와 K-SMS, K-SFA의 상관관계

		K-SMS	K-SFA
K-CPQ	전 체	.817**	.743**
	일상생활활동	.724**	.653**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733**	.537**
	놀이	.775**	.686**
	여가	.783**	.634**
	사회활동	.799**	.589**
	교육	.678**	.711**

**p<.01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299명을 대상으로 한글판 CPQ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국내 발달장애아동의 참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한글판 CPQ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Cronbach α값을 구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증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CPQ의 각 영역에서 Cronbach α값이 .81~.90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사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가 .807~.843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osengberg, Jarus & Bartrk[12] 등의 결과에서도 CPQ의 내적일치도 Cronbach α는 .79~.90,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사에서의 급간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는 .84~.90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글판 CPQ의 판별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장애아동 146명과 비장애아동 153명의 각 영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그룹의 각 영역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글판 CPQ가 발달장애아동의 참여에 대한 평가도구로서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 그룹과 비장애아동 그룹의 결과를 영역별로 비교해 볼 때, 비장애아동 그룹은 모든 영역에서 기준선을 초과하여 전형적인 아동의 참여정도를 보이는 반면, 장애아동 그룹은 참여 다양성 영역(기준선 33 이하)은 32.67, 참여 빈도 영역(기준선 3.53 이하)은 2.24, 참여 자립도 영역(기준선 4.25 이하)은 2.01, 아동의 즐거움 영역(기준선 4.74 이하)은 4.32, 부모 만족도 영역(기준선 4.34 이하)은 3.46으로 나타나 국내 발달장애아동의 참여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낮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자립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보고 된 점은 장애아동의 한계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고 이렇게 자립도가 낮음에 따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같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Rosengberg, Jarus & Bartrk[12]가 제시한 이 기준선에 대한 국내에서의 적용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기준선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판 CPQ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국내에서 장

애아동의 적응행동 평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K-SMS와 K-SFA를 준거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글판 CPQ와 K-SMS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817, 한글판 CPQ와 K-SFA 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7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이 결과를 토대로 한글판 CPQ는 발달 장애아동의 가정과 학교, 아동의 환경과의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준거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한글판 CPQ가 K-SFA보다 K-SMS와의 상관성이 더 높은 이유는 K-SMS의 하위 항목들이 한글판 CPQ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국내에서 한글판 CPQ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다른 평가도구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장애아동의 가정과 학교, 그 외 사회환경과의 적응과 참여를 평가하는 Children's Assessment of Participation and Enjoyment(CAPE) 및 the Assessment of Life Habits(LIFE-H) 등과의 수렴타당도 검증도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장애아동의 표본수가 크지 않고, 학령기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국내의 발달장애아동 모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별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만을 검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렴타당도, 내용타당도 등 좀 더 다양한 접근방법의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발달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발달장애아동 간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았다. 다양한 장애유형, 장애의 경중도 간의 한글판 CPQ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도구를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글판 CPQ의 다각적인 연구로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유용한 평가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CPQ는 장애아동의 환경에의 참여 수준을 평가하도록 고안된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과정을 거친 한글판 CPQ의 최종본을 사용하여 229명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글판 CPQ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글판 CPQ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한글판 CPQ의 신뢰도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글판 CPQ의 판별분석결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두 그룹을 비교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K-SMS, K-SFA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한글판 CPQ는 기존 적응행동도구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글판 CPQ는 발달장애아동이 전반적인 참여수준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었으며 가정, 학교 및 임상에서 치료 계획 및 중재 전략을 위한 타당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Switzerland: Author, 2001.
- [2] M. Law and G. King, "Participation! Every child's goal," *Today's Kids in Motion*, Vol.1, pp.10-12, 2000.
- [3] M. K. Bult, O. Verschuren, M. j. Jongmans, E. Lindeman, and M. Ketelaar, "What influence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f children and youth with physic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32, pp.1521-1529, 2011.
- [4] D. Edwards and C. Christiansen, "Occupational development. In: Christiansen C, Baum C, Bass-Haugen, editors. *Occupational therapy:*

- performance, participation, and well being,” 3rd ed. Thorofare, NJ: Slack, pp.43-63, 2005.
- [5] G. King, M. Law, S. King, P. Rosenbaum, M. Kertoy, and N. Young, “A conceptual model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reation and leisure particip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Vol.23, pp.63-90, 2003.
- [6] D. Lollar and R. Simeonsson, “Diagnosis to function: classifi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Vol.26, pp.323-330, 2005.
- [7] W. Coster and M. A. Khetani, “Measuring particip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sues and challenges,” *Disability Rehabilitation*, Vol.30, pp.639-648, 2008.
- [8] I. C. Eyssen, M. P. Steultjens, J. Dekker, and C. B. Terwee, “A systematic review of instruments assessing participation: Challenges in defining participation,”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Vol.92, pp.983-997, 2011.
- [9] M. Levasseur, J. Desrosiers, and D. S. Tribble, “Comparing the disability creation process an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models,”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74, No.3, pp.233-242, 2007.
- [10] K. Himmelmann, E. Beckung, G. Hagberg, and P. Uvebrant, “Gross and fine motor function and accompanying impairments in cerebral palsy,”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Vol.48, No.6, pp.417-423, 2006.
- [11] V. McManus, P. Corcoran, and I. Perry,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in pre-teenage children living with cerebral palsy in South West Ireland,” *BMC Pediatrics*, Vol.8, No.1, pp.1-10, 2008.
- [12] L. Rosenberg, T. Jarus, and O. Bar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hildren Participation Questionnaire(CPQ),”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Vol.32, No.20, pp.1633-1644, 2010.
- [13] R. Forsyth and S. Jarvis, “Participation in childhood,” *Child Care Health Development*, Vol.28, pp.277-279, 2002.
- [14] W. Coster, T. Deeney, J. Haltiwanger, and S. Haley, *School function assessment, user’s manual*, San Antonio, TX: Therapy Skill Builders, 1998.
- [15] G. King, M. Law, and S. King, *Children’s assessment of participation and enjoyment*, Hamilton, CanChild Center for Childhood Disability Research, 2002.
- [16] L. Noreau, C. Lepage, L. Boissiere, F. P. Fougereyrollas, M. Jean, D. Gilbert, and N. Line, “Measuring participation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ing the assessment of life habits,”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Vol.49, pp.666-671, 2007.
- [17] L. Rosenberg and O. Bar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hild Participation Questionnaire-School(CPQ-School),” *The Israeli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24, pp.70-87, 2015.
- [18] 김승국, 김옥기, *사회성숙도검사*, 중앙적성출판사, 1985.
- [19] 신예나, 박수현, 이지연, 박지혁, “한글판 School Function Assessment (SFA)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 제22권, 제4호, pp.27-37, 2014.
- [20] W. J. Coster, M. C. Mancinin, and L. Ludlow, “Factor Structure of the School Function Assessment,”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59, 1999.

